

민천홍보

제2853호

2024년 11월 17일 | 연중 제33주일 (세계 가난한 이의 날)

발행 천주교 인천교구 발행인 정신철 편집 천주교 인천교구 홍보실
주소 22573 인천광역시 동구 박문로 1 이메일 hongbo@caincheon.or.kr



우리 본당 가족사진 <원종2동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성당>, 2008년 설립

입당송 | 예레 29,11.12.14 참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재앙이 아니라 평화를 주노라. 나를 부르면 너희 기도를 들어 주고, 사로잡힌 너희를 모든 곳에서 데려오리라.

제1독서 | 다니 12,1-3

화답송 | 시편 16(15),5와 8.9-10.11(◎ 1 참조)

- ◎ 주님, 저를 지켜 주소서. 당신께 피신하나이다.
- 주님은 제 몫의 유산, 저의 잔. 당신이 제 운명의 제비를 쥐고 계시나이다. 언제나 제가 주님을 모시어, 당신이 제 오른쪽에 계시니 저는 흔들리지 않으리이다. ◎
- 제 마음 기뻐하고 제 영혼 뛰노니, 제 육신도 편안히 쉬리이다. 당신은 제 영혼 저승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당신께 충실한 이에게 구령을 보지 않게 하시나이다. ◎

- 당신이 저에게 생명의 길 가르치시니, 당신 얼굴 뵈으며 기쁨에 넘치고, 당신 오른쪽에서 길이 평안하리이다. ◎

제2독서 | 히브 10,11-14.18

복음 환호송 | 루카 21,36 참조

◎ **알렐루야.**

- 너희는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여라. ◎

복음 | 마르 13,24-32

영성체송 | 시편 73(72),28

저는 하느님 곁에 있어 행복하옵니다. 주 하느님을 피신처로 삼으리이다.



소리주보 QR

하느님의 구원 활동 마무리

어느덧 전례 시기 마지막에 와 있습니다. 전례 시기의 끝에 와 있다는 것은 하느님의 구원 활동이 이제 마무리에 와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교회는 우리를 데려가려고 오실 그분을 만나도록 준비시켜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역사와 삶의 끝에 와 있고, 그동안의 결실을 거둘 때라는 의미를 새깁니다.

오늘 복음은 자연현상들의 변화를 들어 세상 끝에 관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 무렵 환난에 뒤이어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은 흔들릴 것이다.” (마르 13,24-25)

그리고 우리가 무화과나무를 보고 계절의 변화를 아는 것처럼, 다가오는 종말 역시 표징을 통해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마르 13,28 참조) 예수님은 지상 생활의 마지막 날들을 보내시면서 ‘예루살렘 파괴(세상의 소멸)’를 알리시고(마르 13,2 참조), 그리고 동시에 당신의 다시 오심(거두어들임)을 알리십니다.

“그때에 ‘사람의 아들이’ 큰 권능과 영광을 떨치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마르 13,26)

그래서 종말과 주님의 재림은 동시 사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오실 때, 우리가 당신을 맞이할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사람의 아들이 문 가까이 온 줄 알아라.” (마르 13,29)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가져오신 구원을 거부한 사람에게는 그날이 두려운 날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느님 나라(구원)를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대한 비극적인 표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당신의 다시 오심’의 예고

는 이러한 비극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믿는 이들을 다시 모아들이겠다는 희망의 말씀입니다. (마르 13,27 참조) 이 희망은 곧 주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희망으로 깨어 준비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예언자는 전합니다.

“일찍이 없었던 재앙의 때가 오리라. 그때에 네 백성은, 책에 쓰인 이들은 모두 구원을 받으리라.” (다니 12,1)

오늘 다니엘 예언자는 이분법적인 종말 이야기를 하면서 “땅 먼지 속에 잠든 사람들 가운데에서 많은 이가 깨어나 어떤 이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어떤 이들은 수치를, 영원한 치욕을 받으리라.” (다니 12,2)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끝이 있음을 생각하고, 잠에서 깨어나 영원한 삶을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는 삶의 끝이 있음을 알고, 지금을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이 생각보다 빨리 지나감을 느낍니다. 그것은 주님이 오실 날이 곧 다가온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죽음의 재앙에서 구원하시러 오십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희생 제사’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없애시려고 한 번 제물을 바치셨습니다.” (히브 10,12)

이것은 세상의 악에 대한 승리입니다. 그러므로 종말은 믿는 이들에게는 희망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러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희망으로 서둘러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최형호 루카 신부
작전동 본당 주임

WYD의 상징물, WYD 십자가와 성모자 이콘

최인비 유스티노 신부 | 교구 청소년사목국 국장

올림픽을 대표하는 상징은 성화 봉송과 점화가 아닐까 합니다. 올림픽 성화는 그리스 올림피아에 있는 헤라 신전 앞에서 태양 빛으로 불을 붙인 후 개최국으로 이동하고, 성대한 점화 예식을 통해 올림픽이 시작됨을 전 세계에 알립니다.

올림픽에서의 성화와 같이 세계청년대회(WYD)에도 ‘WYD 십자가’와 ‘성모자 이콘’이라는 두 개의 상징이 있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은 1983년에 구원의 성년을 시작하면서, 성 베드로 대성당의 제대 근처에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큰 나무 십자가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1984년 성년을 마칠 때에 젊은 이들에게 이 십자가를 맡기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젊은이들이여, 나는 이 희년의 표징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여러분에게 맡깁니다. 그리스도의 인류에 대한 사랑의 상징으로 이 십자가를 전 세계에 전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선포하십시오.”(1984. 4. 22.)

이날 이후로 교황님이 주신 사명을 받아들이는 젊은이들은 기도가 필요한 세계 모든 곳과 WYD가 개최되는 곳으로 이 십자가를 전달하면서, 기도 안에서의 연대를 실천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3년 캐나다 청년들이 다음 개최지인 독일의 청년들에게 WYD 십자가를 전달할 때,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은 십자가와 더불어 성모자 이콘 목판본을 맡기시면서 전 세계를 함께 순례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이콘은 산타 마리아 마조레 대성당에 보관된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의 성화로, 로마인들을 전염병과 전쟁에서 구원해

주었다 해서 “Salus Populi Romani(로마 백성의 수호자)”라고 불리며, 2000년 대회년에 열린 로마 WYD에서 밤샘 기도와 파견 미사 때에도 사용되었습니다. 교황님은 성모자 이콘을 통해 젊은이 모두가 어머니 마리아가 보여주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배워 예수님에게 더욱 가까이 가라고 촉구하셨습니다.

WYD는 모든 가톨릭 신자가 모여 보편 신앙을 고백하는 전 세계적인 만남입니다. 우리는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각지에서 모여 왔으며 다양한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지만, WYD 십자가와 성모자 이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임을 상기시키는 보편적인 상징입니다.

이제 ‘온 우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왕 대축일’이자 제39차 세계 젊은이의 날인 다음 주일(11/24)에 로마에서 WYD 십자가와 성모자 이콘 전달식이 거행됩니다. ‘2027 서울 WYD’를 위해 우리나라의 청년들이 WYD 십자가와 성모자 이콘을 전달받아 한국으로 모셔 옵니다. 그리고 이 WYD 십자가와 성모자 이콘은 대림 제2주일에 우리 교구를 방문합니다. 우리 교구는 이를 기념하여 12월 7일 밤 8시부터 기도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은총의 밤에 교구의 청소년과 청년, 교리교사 그리고 함께 기도하실 분들을 초대합니다.

갈갈수녀님



소중함은 늘 가까이 있어요

시련 뒤에 더 큰 믿음이

정종분 모니카 | 학익동 성당

울었습니다. 또 울었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서 진단결과 암이라는 병명을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암으로 고생한다는 것을 들어 알고는 있었지만 나에게도 이런 일이 생긴다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슬프고 힘들었기에 하느님께 기도할 생각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너무도 힘들고 괴로워서 좌절에 빠져 지냈습니다.

치료하면서 컨디션이 좋을 때면 성당으로 힘겨운 발걸음을 옮기면서 마음으로 ‘주님, 생과사를 주관하시는 하느님, 저는 이제 칠십 중반의 나이인데 더 이상 몸부림치며 살려달라고 하지 않으렵니다. 오직 주님의 뜻에 맡기겠습니다.’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시간이 되는 대로 성당에 가서 성찰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미사 안에서 주님을 만나 뵙는 영적인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언젠가 성경말씀 뽑기에서 주어진 “믿음 안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라는 구절이 나의 마음에 용기를 심어주어 늘 머릿속에 되새기니 힘이 되는 듯하여 감사했습니다. 어느 날 미사에서 신부님 강론 중 ‘버려야 산다.’라는 말씀을 듣고 저도 삶에 대한 집착도 욕심도 미움도 모두 버리려 합니다.

내 영혼까지 달래주는 성경 말씀, 미사 중 사제의 기도 경문, 강론 속에 나를 달래주는 복음 말씀에 참으로 감사와 희망이 샘솟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이 건네준 이런 저런 좋은 말과 위로의 말과 기도도 감사합니다.

이제 나는 암 환자라는 생각을 버리고, 삶에 대한 욕심도 버리고, 나의 남은 생활 속에서 활짝 웃으며 예전의 씩씩했던 모니카로 돌아가기를 다짐하며 삶을 되돌아보는 시 한 편을 적어 봅니다.

78개의 나의 돌

새로운 한해

짊어진 가방에 돌을 담는다.

어릴 적엔

내 고향 이작도 해변에서 작은 조약돌을
소년시절에는 많은 꿈이 그려진 예쁜 돌을
어른이 되어서는

모난 돌, 깨진 돌, 조각난 돌을

신앙생활에서는

잘 다듬어진 하얀 돌을

이제 황혼녘에 머무는 오늘은
푸석푸석 볼품없는 돌을 담는다.
이렇게 일흔 여덟 개의 사연들을
가방에 담았다.

언젠가는

무거운 이 가방을

어느 모퉁이에 내려놓고

주님의 곁으로

홀가분하게 돌아가겠지.





제4회 인천교구 청년 1945 창작생활성가제

청소년사목국에서는 “제4회 인천교구 청년1945 창작생활성가제”를 진행합니다. 이번 성가제는 2025년 희년의 주제인 “희망에 순례자”에 맞추어 “희망”이라는 주제로 참가곡을 공모하였고, 심사 결과 7팀의 본선 진출팀을 선발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신자분들이 참석하시어 본선 무대에서 경연을 펼치는 참가팀에게 많은 응원과 격려를 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4회 인천교구 청년 1945 창작생활성가제 안내



일시 11/24(주일) 15:00~18:00
장소 보니파시오 대강당
대상 교구 내 청년 누구나
문의 카카오톡 채널
[인천교구 청소년사목국]
032-765-6964

| 현장 인기투표 진행 예정

본선 진출 7팀

희망의 빛 · 김수경 소화데레사(중2동)
도토리 숲 · 도토리군단(사우2동, 만수6동, 영종)
희망의 날개 · 블리스 밴드(해안)
선택 · 엘피다(검암)
The VoicE · 주찬찬(청소년사목국 소속팀)
청원 · 피아트 룩스(논현동)
광야 속에 피어난 · 허정희 세실리아(여월동)

알려드립니다!



(재)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 맑은청소년지원금 신청 안내



신청기간 11/18(월)~12/27(금)
신청자격 만 9~24세 청소년
(해당 기간 내 대학 재학생은 성장지원금 신청 불가)
제출방법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제출
youth@yism.or.kr
※ 12/27(금) 도착분까지 유효

알려드립니다!



인천교구 YOUTH 축제 “제31회 바다의 별 축제”



일시 2025/2/9(주일)
장소 인천교구청
모집 15~35세의 청소년, 청년, 교리교사 봉사자
문의 카카오톡 채널 [인천교구 청소년사목국]

| 담화문 |

제8차 세계 가난한 이의 날

“가난한 이들의 기도는
하느님께로 올라갑니다”

(집회 21,5 참조)



가난한 이들의 기도는
하느님께로 올라갑니다

2024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2024년 제8차 세계 가난한 이의 날
담화 전문



교구 청

지구를 위한 미사와 환경특강

일시: 11/20(수) 10:00
장소: 작전2동 성당
문의: 032-765-7255 생태환경사무부

제4회 창작생활성가제

일시: 11/24(주일) 15:00
장소: 보니파시오 대강당
문의: 032-765-6964

김병상 아카데미

“뉴라이트 친일파의 전면 부상과 한국사회”
일시: 12/2(월) 18:30
장소: 주안5동 성당
강사: 전우용 역사학자
문의: 032-765-6970 정평위

교구 사회사목국 사회교리 주간 특별 포럼

기후위기 시대 농업과 노동 살펴보기
일시: 12/4(수) 19:00
장소: 답동 사회사목센터 지하
문의: 032-865-6792

551차 카나혼인강좌

일시: 25/1/5(주일) 13:30~18:30
장소: 보니파시오 대강당
문의: 032-762-8888 가정생명사목부

교육 | 미사

인천ME 465차 주말

일시: 12/13(금)~15(주일) 강화갑곶성지
문의: 032-761-1015

성서주간 ‘말씀의 잔치’

“예수님 곁에 머무르는 사람들”(마르 4,10-12 말씀묵상)
일시: 11/26(화) 10:00~13:00 부평1동 성당
대상: 교구 전신자
강사: 정천 사도 요한 신부(인천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마감: 11/17(주일)까지 (1인당~1만5천원)
접수: 각 본당 말씀의 봉사자(가톨릭성서모임),
교구 성서사도직,
cbim-incheon@naver.com
문의: 032-765-6967 교구 성서사도직

하느님 자비의 사도모임(천주교 사도직 팔로티회)

강의, 성시간, 미사
일시: 11/19(화) 14:00~17:00
장소: 답동 사회사목센터 지하
문의: 010-3809-0200

서강대학교 [영성 특강]

“단테 신곡, 연옥편: 칠층산 이야기_칠죄종과 칠극”
일시: 11/25(월) 14:00~16:00 (강의와 미사)
장소: 서강대학교 이나시오 소강당(무료)
강사: 예수회 김산춘 신부
문의: 02-705-4711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성 이시돌 목장 내 성지에서 섬과 성지순례,
제주여행과 자연순례(25년 피정 접수 중)
대상: 개인, 가족, 본당 구반장, 소규모 모임
자연순례: 12/6~8, 14~16, 25/1/11~13, 16~18
한라산 눈꽃산행: 25/1/20~22, 24~26, 2/1~3
연말연시(한라산, 해님이, 해돋이): 12/29~25/1/1
문의: 064-796-4182,
02-773-1455(제주자연피정)

제주 면형의 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 신부들과 제주 성지, 역사, 생태순례와
성무일도, 미사를 함께하는 산들평화순례
생태순례: 12/7~9, 13~15, 25/1/17~19
한라산 눈꽃산행: 25/2/8~10, 14~16, 22~24
연말연시: 12/30~25/1/2(한라산 눈꽃산행)
성지순례(추차도 포함): 25/3/1~4, 9~12
문의: 064-756-6009,
02-773-1463(제주자연피정)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

[1박 2일] 12/21(토)~22(주일), 25/2/14(금)~15(토)
[3박 4일] 11/28(목)~12/1(주일), 12/5(목)~8(주일)
[8박 9일] 12/26(목)~25/1/3(금), 1/6(월)~14(화)
[40일] 12/14(토)~25/1/22(수)
장소: 문산 예수마음피정의 집
문의: 010-4906-5722, 031-953-6932

11월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일시: 11/19(화) 14:00
장소: 도화동 성당

성 도미니코선교수녀회 피정

·성경완독: 12/6(금)~14(토)
·안소근 수녀와 함께하는 구약여행
열두 소예언서 II: 12/20(금)~22(주일)
문의: 010-3340-0201 황성 도미니코 피정의 집

예수고난회 서울명상의 집 피정

·개방의 날 무료피정: 12/6(금)
매월 첫(금) 10:00~15:30
·수요개방미사: 매주(수) 15:00
·단식피정: 11/25(월)~29(금)
·대침묵피정(요한묵시록): 12/11(수)~14(토)
문의: 02-990-1004 예수고난회 서울명상의 집

이승훈 베드로 성지 11월 후원회 미사

일시: 11/21(목) 15:00 미사
14:20 묵주기도
장소: 이승훈 베드로 성지 기념관
(이승훈 역사공원)
문의: 032-765-6916

한국외방선교회 후원회 미사

일시: 11/21(목) 14:00
장소: 답동 주교좌 성당
문의: 02-3673-2525

가톨릭문화원 상설 음악피정미사, 무료 콘서트

일시: 매주(주일, 목) 14:00
장소: 가톨릭문화원 아트센터
(김포시 하성면 월하로 970-18)
버스운행: 13:30 장기역 3번 출구
버스정류장 옆 공영주차장
문의: 1577-3217

모 집 | 일반

교구 운영 하늘의 문 성당 “봉안당” 접수

위치: 인천 서구 당하동 산152-1 백석묘지 내
준공: 2025년 상반기 준공(예정)
접수: 인천교구청(송림동)방문 및 온라인 위치 선정
서류: 교적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
봉안: 60년(30년, 추가 30년 가능)
봉헌금: 4백만원, 5백만원
접수: 032-765-7251
<http://haneul.caincheon.or.kr>

25학년도 초등 신규교사 채용계획 공고

기간: 12/2~25/1/3
주관: 학교법인 인천가톨릭교육재단
전형일정: 인천박문초 홈페이지,
인천교육청 홈페이지 참조
문의: 032-766-6985, 6986

인천성모병원 신규 자원봉사자 모집

대상: 만 65세 이하 성인 남·여
문의: 032-280-6221~2

포메스심리상담소(도미니코수도회)

가족, 부부, 갈등, 심리, 영적성장
상담을 통한 치유와 성장이 있는 따뜻한 동행
방법: 대면, 온라인, 전화 모두 가능[주 1회]
문의: 010-3201-0520 상담자 노경덕 신부

솔샘나우리센터(심리정서치료)

놀이, 모래놀이, 치료놀이,
언어치료, 감각통합치료
대상: 아동, 청소년
샬트르성바오로수녀회 운영
문의: 032-872-2731, www.solsam.or.kr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알코올 전문병원, 중독중점 입원 및
외래 통원치료(도박, 인터넷 게임)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의학과 진료
진료: (월~금) 9:00~17:00
장소: 고양시 백석역(3호선) 7번 출구 5분 거리
문의: 031-810-9200, www.karf.co.kr

가톨릭대학교 교회음악대학원 신입생 모집

석사과정(5학기): 오르간, 작곡(CCM작곡 포함),
합창지휘
석사학위 및 가톨릭교회 인준의
고급교회음악가자격증 수여
원서접수: 12/2(월)~13(금)
전형일: 25/1/10(금)
장소: 최양업 홀(충정로역, 서울역 하차)
문의: 02-740-9704
<http://songsin.catholic.ac.kr/music>

가톨릭상지대학교 25학년도 신입생 모집

안동교구에서 운영하는
전국 유일의 가톨릭 전문대학
수시 2차: 11/8~22
문의: 054-851-3021~2 입학홍보처
<http://ipsi.csj.ac.kr>

예수성심 인천천교회(재속)회원 모집

대상: 만 65세 이하 남녀 교우
문의: 010-8752-9566

순례 | 기타**해외 성지순례**

12/10 출발: 라방, 짝깨우 성모발현성지 [5일]
지도사제 동행(미사)
문의: 010-5909-5997 김명윤 베네딕도

예수회후원회 성지순례

25/1/14 일본 나가사키 순교성지 [4일] 130만원
25/2/10 일본 나가사키 순교성지 [4일] 130만원
25/2/17 베트남 다낭 성모성지 [5일] 150만원
25/3/14 이탈리아 수도원 및 명소 탐방
[12일] 560만원
25/3/28 사도 바오로 발자취(터키, 그리스)
[12일] 480만원
문의: 02-722-8366

해외 성지순례

25/2/10 이탈리아 일주(히년 전대사) [13일]
25/2/11 유럽 4개국 성모 발현지 [12일]
25/3/24 파리, 루르드, 바티칸, 로마 등 [11일]
25/5/19 멕시코, 페루, 아르헨티나, 브라질 [13일]
참고: www.catholictravel.co.kr
문의: 010-5235-3533 가톨릭회관 619호

미리내천주성삼성직수도회 성지순례

25/4/24~5/5 성모발현지 520만원
문의: 010-7374-3217

국내, 해외, 제주도 성지순례

25/1/7 나가사키 [4일]
25/1/13 베트남 나트랑·달랏 [5일]
25/1/21 태국, 파타야 [5일]
25/2/6 스페인, 포르투갈 [12일]
제주성지순례 6명부터 출발
문의: 010-8650-9690
www.michaeltour.co.kr

해외 성지순례

25/1/6 멕시코(과달루페, 칸쿤) [10일] 715만원
25/1/15, 3/9 포르투갈 일주 [9일] 299만원
25/1/17, 2/14, 3/14 시칠리아, 몰타 [10일] 485만원
25/2/12 성모발현지 [12일](대한항공) 495만원
25/2/24, 3/3 터키, 그리스 [11일] 초특가 385만원
25/3/26 대한항공 이탈리아 일주 [9일] 419만원
문의: 02-778-8565

전국167, 제주 3박 4일, 베트남, 일본, 마카오 성지순례

매월 출발, 35만원 / 120만원
문의: 010-4239-1929

해외 성지순례

25/1/26 파타마, 스페인, 루르드 [12일] 460만원
25/3/3 튀르키예, 그리스 [12일] 495만원
25/3/11 동부유럽 4개국 [11일] 395만원
문의: 02-2281-9070, www.cttourtour.org

대천해수욕장 요나성당(연수원) 운영

대천해수욕장 관광 및 휴양, 개인피점, 매일미사,
대전교구 성지순례를 위한 숙소로 이용 가능
인근 성지: 갈매못 순교성지, 서짓골 성지,
청양 다락골 성지
인터넷 검색창에 '요나성당 연수원' 검색
문의: 041-934-7758
<https://yonaresort.modoo.net/>

성소모임**미리내 천주성삼성직수도회**

하느님께 자신을 온전히 봉헌한 삶의 길을
함께 걸어갈 새로운 가족을 모집 중
대상: 수도 생활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 및 청년
문의: 010-5195-3217 성소부

한국외방선교수녀회

일시: 11/24(주일) 14:00(그 외는 전화)
장소: 서울 보문동 수녀원
대상: 선교와 수도생활에 관심있는 미혼 여성
문의: 010-9353-1773(미리 연락)

**이주민들을 위한 쌀과 김치 나눔 프로젝트**

교구 이주사목부에서는 12월 이주민들을 위한 모금을 실시하여 12월 15일(대림 제3주일) 자선 주일에 각 가정에 우리농 쌀 4kg과 김치 3kg 나눔 행사를 진행합니다. 교구 관할 지역의 이주민 공동체인 필리핀(답동, 오정동), 베트남, 방글라데시, 해양 어선원, 품놀이터, 중남미(역곡, 곤솔라파) 공동체와 별사랑이주민센터, 글라렛이주민센터, 김포이웃살이, 까리파스이주민문화센터, 국경없는친구들 등 1,000가정에 나눔 계획이오니, 교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이웃인 이주민들이 여러분들의 소중한 나눔으로 마음이 따뜻한 겨울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주사목부는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과 함께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후원계좌 우리은행 021-195818-13-501[인천교구]
우리농 쌀, 소래찬 김치 1가정-3만 5천원
문의 032-764-1094 교구 이주사목부